

연구논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조사연구: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The Survey Research on Inter-Generational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 Emphasis on the Social Relationships

정병은** · 이기홍***

Byeong-Eun Cheong · Gihong Yi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노화에 대한 경험과 기준이 다르고 성공적 노화의 의미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조사하여 세대별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로 수집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사회관계의 영역은 부부 관계, 부모-자녀 관계, 직계가족외 관계, 자녀에 대한 기대로 구분되었고, 세대는 식민지·전쟁 세대, 복구·부흥기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성공적 노화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부모-자녀 관계 및 자녀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세대별 인식차이가 발견되었다. 주로 식민지·전쟁 세대, 복구·부흥기 세대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의 차이로 대비되며, 세대효과는 세대의 구성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세대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세대의 특성에 따른 고령화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세대 차이, 성공적 노화, 사회관계

The perception of aging experience and successful aging depends on birth cohort as Korean society has rapidly changed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This article aims to empirically explain inter-generational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with an emphasis on the social relationships using a national survey data set by face-to-face interviews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pondents are

* 본 연구는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KRF-2007-411-J01903).

**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고령사회연구소 공동연구원 이기홍.
E-mail: gihong.yi@gmail.com

classified into colony · war, restoration,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on generat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erceptive differences are found between colony · war and restoration generation, and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on generation. The difference are clear in the aspects of expectation for children and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The inter—generational difference remains even after controlling other relevant factors. Policies and programs, therefore, should 1) attempt to help inter—generational understanding, and 2) consider the yet—existing uniqueness of each generation.

Key words : inter—generational difference, successful aging, social relationships

I. 서론

한국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에는 고령 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공식적, 제도적 노인복지의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노인부양과 보호를 담당해 왔던 가족체계의 약화와 맞물려 이러한 ‘압축적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질병, 빈곤, 고독, 무위의 4중고를 겪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최근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중상층 노인들은 의존적이고 할 일 없고 소외되었다기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조성남 1998). 게다가 미래의 노인층은 교육수준이 월등히 향상되고 경제적으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서 자신의 노후를 안락하고 풍요롭게 영위하려는 욕구를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신노년학에서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노인을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보고,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성공적 노화의 조건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노화의 상실과 저하에 주목했던 과거의 패러다임과 달리, 노인의 잠재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했다(정경희 외 2006).

그런데 연구자들이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규정하고 관련된 요인들을 제시한 모델과 실제로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라는 의미를 인식하는 것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Phelan et al. 2004; Strawbridge et al. 2002),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노인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의 의미는 서로 다르게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지은 2006; 백지은·최혜경 2007; Torres 2002). 노인인구가 동질적이고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이질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라고 생각하는 의미와 기준이 개인과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 사회 내에서도 세대에 따라서 노화의 경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세대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의 차이는 노화의 본질과 성공적 노화를 위한 구성요인을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세기동안 격동의 역사를 헤쳐 왔기 때문에 세대별로 사회적 인식과 가치체계도 다르게 구축되어 세대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단절되는 경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세대간 인식차이는 주로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며(김혜영 2005; 조성남·최유정 2002; 함인희 2000), 최근에는 선거과정, 그리고 비정규직과 실업 등의 사회적 쟁점과 맞물리면서 세대적 소외감이 표출되기도 하였다(박재홍 2009; 송호근 2003; 우석훈·박권일 2007).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최근 신노년학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세대별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별 인식 연구는 성공적 노화가 인간의 전체 생애과정을 통해서 연속적인 의미를 갖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지 파악함으로써 개인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표출하는 욕구를 포착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한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도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이 아닌 연령층을 다루거나 서로 다른 연령층을 비교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강인 2003; 박경란·이영숙 2002; 손미숙 2004; 최인영 2007). 노인이 성공적 노화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중년이나 청년이 인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Hummert et al.(1995)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역할과 이에 따른 경험들이 노화에 대한 본질을 달리 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박경란·이영숙 2002 재인용).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요구되는데(Mitchell 2002), 이 글에서는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성공적 노화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공적 노화의 의미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데, 사회관계야말로 각 사회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주요한 특징은 집합주의의 약화와 개인주의의 강화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개인의 사회관계와 관련된 문제로 집약된다. 따라서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여 형제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등의 다양한 관계들이 성공적 노화와 관련지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분석한다. 성공적 노화를 세대별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고령화에 의해 초래되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현재 및 미래의 노인층이 스스로 인식하고 표출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1. 성공적 노화와 사회관계

신노년학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성공적 노화는 매우 다의적이며 다차원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공적 노화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Rowe & Kahn과 Baltes & Baltes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기 주요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Baltes & Baltes(1990)는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최적화’(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를 통해, 노화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고 개인이 보유한 기술을 최적화하여 상실한 것을 보상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감소된 능력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능력을 최적화하여 주관적 만족을 이끌어 내라고 강조하였다. 반면 Rowe & Kahn(1998)은 질병과 장애를 피하고 일정 수준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생에 참여하라고 제안한다. 성공적 노화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본 이들은 식습관, 운동, 자기개발 등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위해 노인들이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성공적 노화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Fisher & Specht(1999)는 목적의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자율성, 건강을 제시하였다. 또한 Crosnoe & Elder(2002)는 가족관계, 직업적 성공, 시민역할 참여, 생활만족, 활력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현재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공적 노화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았다. Chou & Chi(2002)는 성공적 노화를 기능적 상태, 정서적 상태, 인

지적 상태, 생산적 참여 상태를 포함한 4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국내에서도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데, 성공적 노화를 자아통합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홍현방 2002), 복(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부 복, 자식 복, 친구 복, 여가생활 복, 거처 복, 재산 복, 건강 복, 마음 복, 죽음 복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김미혜 외 2004). 이렇듯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성공적 노화란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규정된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해서는 활발한 사회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Rowe & Kahn(1998)은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인생참여를 강조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노인의 안녕을 가장 잘 예측한 요인은 친구들과의 교류 횟수와 단체 모임에 참석한 횟수이며, 노인들 스스로 사회관계망, 특히 가족과 친척관계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Vaillant(2003)는 50세 이전까지 형성한 인간관계가 이후의 생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결론지었다. 이밖에도 사회관계의 유지를 성공적 노화의 전제로 간주하기도 하며(Riggs 1997),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서 사회활동에 참여와 사회관계의 유지를 강조한다(Mannell & Dupuis 1996). 또한 노인의 사회적 관여(social engagement)는 노인의 인지력 감퇴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관여란 배우자의 존재, 3인 이상의 친척·친구와 매월 만나는 것, 10인 이상의 친척·친구와 매년 연락을 주고받는 것, 종교예배의 참가, 사회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사회활동을 말한다(Bassuk et al. 1999).

흥미로운 점은, 서구사회에서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는 자율성, 자아수용, 그리고 개인적 성장과 같이 자급자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내연구에서는 경제적 안정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노년기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없는 서구와 달리 한국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성공적 노화에 관한 문헌연구(백지은·최혜경 2007)를 보더라도 서구사회는 생산성과 봉사활동, 자아 및 현실 수용,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 그리고 목표의식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는 반면 한국사회는 경제적 준비와 안정, 안락한 생활, 존경과 대접을 받는 삶, 그리고 가족관계가 중요한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즉 서구사회는 노년기에도 목표지향적이고 적극적이며 생산적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 요소들이 중요한 반면 한국노인들은 과욕을 부리지 않고 순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특성이 강조되기보다 관계적 상황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사회관계에서 서구사회는 단순히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강조되는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사회관계 중에서 가족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자녀들에게 투영되는 삶이 중요하다. 즉 한국노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삶의 다른 영역들이 자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서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제공과 부모로서의 역할 완수가 강조되고, 그로 인해 자녀들이 성공할 경우 이를 자신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강인 2003; 김미혜·신경림 외 2004; 김미혜·임연옥 외 2004; 박경란·이영숙 2002; 백지은·최혜경 2005; 성혜영·유정현 2002). 이와 비슷하게 중국노인들은 그들의 재정적, 심리적,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의 영향력, 그 중에서도 성인 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Torres 2002), 태국노인들도 자녀들의 성공이 자신의 심리적 안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Ingersoll-Dayton et al. 2001).

2. 세대별 성공적 노화의 인식

세대에 대한 관심은 60년대 사회운동을 계기로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관계가 초점이 되었고, 최근에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노년층과 청년층·중년층 간의 갈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산가능연령층이 내는 세금이 자녀들에게 투자되지 못하고 노부모를 위한 노후보장에 쓰이게 되기 때문에 세대는 계급이나 성에 못지않게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대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존재해 왔지만 한국과 같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비교는 성공적 노화의 경험은 인간의 전체 생애과정을 통해 연속적인 의미를 갖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세대가 다르면 인생의 주요 경험들이 질적으로 다르고 사회적 인식과 가치체계도 다르게 구축되므로 노년기의 삶과 노화의 본질, 성공적 노화의 기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생과 노인층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Charbonneau-Lyons et al.(2002)은 연령층에 따른 인식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즉 25세 이하, 26~39세, 40~59세,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관계없이 사회·가족관계, 내재적 가치, 재정적 능력, 목표 달성, 그리고 인지 기능은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었고,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며 외양(physical appearance)은 가장 중요하지 않았다. 연령과 관련된 유의한 차이라고는 노인층이 젊은층에 비해서 재정적 능력과 외양을 더 중시하는 것뿐이었다.

반면 한국사회는 연령층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달리 인식하는 차이를 보이는데, 노인층과 청년층에게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질문한 결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의 순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박경란·이영숙 2002). 즉 노인층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으로서 자율성,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완수, 그리고 자아수용 등의 순으로 중시하는 반면, 청년층은 자율성, 개인성장, 역할완수, 자아수용, 그리고 안락한 생활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동일한 구성요소라 하더라도 연령층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다르게 수용된다. 이를테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자율성을 노인층은 신체적 건강의 의미로 여기는 반면 청년층은 경제적 측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수용하는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강인 2003)에서도 노년기 여성은 신체적 건강과 가족을 중요시하지만, 중년기 여성과 청년기 여성은 개인의 성장과 자율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는 연령층별로 경험의 차이가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격변의 시대를 경험한 사회는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연령층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구성요소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세대별 인식을 설명할 때 중요한 문제는 세대의 개념규정과 세대의 경계선 구분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노인과 노인이 아닌 집단을 연구자가 임의대로 정한 연령집단(age group)으로 구분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층에 해당되는 집단의 인식은 미래의 노인층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두 집단이 살아온 시대적, 사회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 연령집단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 초래되는 인식의 차이는 세대라는 개념으로 포착될 수 있다. Mannheim(1952)에 따르면 세대는 단순히 생물학적 연령의 의미를 넘어서 동시대에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비슷한 사회의식과 가치관을 표출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범주이다. 그는 청소년기의 경험이 이후에 겪게 되는 경험들의 의미와 성격을 규정하므로 출생시기에 따라 경험들의 위계구조가 다르며 세대별로 상이한 의식구조와 행위양식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한편 Kertzer(1983)는 그동안 세대라는 개념이 크게 네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았다. 첫째, 가계계승의 단위로서 친족계보에서 항렬이 같은 사람들로서,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자녀세대와 같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둘째,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동년배(코호트) 개념으로서 동일한 시기에 생애사의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규정된다. 셋째, 생애주기의 동일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청소년 세대, 대학생 세대와 같이 동일한 발달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넷째,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로서 한국전쟁 체험과 같은 특정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넓은 범위의 코호트를 의미한다.

세대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세대구분의 방식이 연구자마다 각양각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기는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성찰하며 새로운 사회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사회적,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세대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둘째, 세대를 구분하는 ‘결정적 집단경험’(crucial group experience)으로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 산업화 및 경제발전, 민주화 및 사회운동, 정보화·테크놀로지의 발전을 꼽았다. 셋째, 1970년 이후 출생 세대는 보릿고개를 겪지 않았고 탈냉전과 정보화의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행태를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김혜영 2005; 박길성 2002; 박재홍 2005, 2008, 2009; 홍덕률 2003; 황상민 1999; 황상민·김도환 2004).

3. 본 연구의 분석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세대개념은 코호트(cohort)로서, 같은 시기에 출생한 것에 더하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는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출생시기가 다르면 어떤 경험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경험은 할 수 없으며, 설령 동일한 경험이라도 개인의 생애에서 어떤 시기에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읽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게 된다. 세대의 구분기준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청소년기에 집단적으로 경험한 식민지·전쟁,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중요하게 보았으며, 또한 현재의 생애단계를 고려하여 노년기 및 노년기 이전의 하위 연령층을 각각 구분하였다. 현재의 생애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각 연령집단에는 연령규범이 존재하며 각 연령층이 수행하는 역할의 가치 또한 사회적으로 차등적인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연령층이 가진 생애단계적 차원의 차이를 통해 해당 연령층의 사고와 행동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4개의 코호트로 구분된 세대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¹⁾ 첫째로 ‘식민지·전쟁 세대’(1934년 이전 출생)는 청소년기에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였으며²⁾, 현재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층(old old)에 해당된다. 이들은 식민지 시대의 정치적,

1) 경험적 연구에서 세대의 경계선을 연대기적으로 나누는 것과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은 불가피한 일로 여겨진다. 중요한 것은 세대구분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점인데,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과 특정 세대의 경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박재홍 2005).

2)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은 역사학자들이 선정한 ‘한국사 2000년 10대사건’ 중에서 각각 3위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결정적인 집단 경험’이 된다(월간조선 2000년, 1월호)

사회적 경험과 삶의 가치를 전쟁의 혼란과 궁핍한 원조경제를 겪으면서 구체화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전통적 가치와 식민지적 억압, 그리고 전후 냉전과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특성을 보이며, 사회혼란과 절대빈곤 속에서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생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집단주의적 가치가 존중되어서 개인을 내세우기보다 집단이 제시하는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로 ‘복구·부흥기 세대’(1935~52년 출생)는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아동기 이전에 경험했고 전후 복구기간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들은 전후 원조경제와 경제개발계획으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세대이며, 현재 65~74세의 전기 노인층(young old)과 노년기 진입을 앞둔 55~64세의 예비 노인층(pre old)³⁾이 포함된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독재·군사정권 및 관료제의 확립, 그리고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이들은 산업화, 근대화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60년대 후반부터 유입된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욕구들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국가 주도 하에 이루어진 집단동원으로 사회적 단결과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사회변화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집단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모습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

셋째로 ‘민주화 세대’(1953~69년 출생)는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및 사회운동의 분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시민적 가치와 같은 사회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40대와 50대 중반의 연령에 해당되며 사회의 중추이자 가족의 가장으로 노부모와 자녀 부양의 이중적 부담을 지고 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와 386세대를 포함하는 이 세대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부흥·복구기 세대와 집단주의적 가치를 거부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정보화 세대에 끼여 있는 샌드위치 세대이다. 그러나 ’70~’80년대의 거대한 ‘민주화의 물결’을 경험하면서 집단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분명하며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고 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 자신들의 삶에 대해 비교적 충실하면서도 간혹 집단 또는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3) 최근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인 50대초에 퇴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정년이 55세로서 다른 국가보다 이른 편인데다, 실제 정년연령은 이보다 젊다. 55세는 역연령, 신체적으로는 전혀 노인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은퇴한 노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이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영역에서 삶을 찾지 못한다면 노년기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의미에서 이들은 예비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네째로 정보매체의 확산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정보화 세대’(1970년 이후)를 이전 세대와 가장 뚜렷하게 구분짓는다. 싸이월드의 ‘1촌 땀기’는 정보화 세대의 가족 개념이 다른 세대와 얼마나 다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개방화를 통한 다원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시기에 성장하였다. 또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물질적 안정과 풍요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화라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집단주의적 목표나 이상은 이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반면 이 세대는 개인의 자율과 개성의 표출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또한 이들의 지배적인 가치는 현재 자신의 입장에서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러한 세대구분 및 특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관계를 인식하는 데서 세대로써 어떠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대의 구성적 차이를 초래하는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세대차이는 여전히 유효한가를 분석할 것이다.⁴⁾ 선행연구를 보면 성공적 노화의 인식은 연령에 따른 차이 외에도 성별, 지역, 학력수준, 건강, 경제상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보이므로(김경연·정여진 2006; 김미혜 외 2004; 성혜영·유정현 2002; 유희정 2007; 정순돌 2007; 홍현방 2002), 이러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는 가족을 중심으로 삶의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구조, 가족주의 성향, 그리고 부양책임감 같은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 역시 성공적 노화와 사회관계의 인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PSS 17.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분석, 사회관계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이는 ANOVA, 사회관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중회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III. 자료 및 측정

1. 자료수집과 표본특성

- 4) 동일한 세대에 속한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동질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시적으로는 계층, 인성, 가족상황 등이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같은 사회적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세대 내의 이질성과 분화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여성들의 다양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험과는 다른 여성의 경험을 설명하는 젠더차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고, 20~34세, 35~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의 연령 코호트별로 표본수를 200명씩 할당하였다. 노인을 단순히 전체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본수를 할당하면 청년과 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수가 조사되기 때문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층화추출과 집락추출을 사용하였다. 먼저 광역시·도, 시·군·구로 층화하여 인구수 및 연령 코호트별 할당을 고려하여 목표 사례수를 계산한다. 무작위로 추출된 집락(읍·면·동)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가구를 정한 후 해당가구 내의 가구원을 최종적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사는 전문조사기관의 훈련된 면접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8년 7월 10일~8월 23일에 대면적 면접조사를 하였다. 사전조사(pretest)를 통해 부적절한 문항과 표현, 배열 등을 조정하였고, 설문지 응답은 원칙적으로 면접원이 기입하였다.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소수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거나, 특정 기관이나 조직, 또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대상자를 조사함으로써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본 연구는 확률적 표본추출로 선택된 전국의 응답자를 조사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가 높다.

〈표 1〉의 결과는 5개의 연령 코호트별로 조사된 응답자를 본 연구의 세대구분 기준에 따라 재조정한 것이다. 국가통계(KOSIS)와 비교해 보면, 고령자와 여성이 약간 과표집되었으나 변수간의 관계와 세대별 비교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모집단 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가 초래할 수 있는 오류를 감안하여 가중치로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한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별로 남성 45.3%, 여성 54.7%로 여성이 더 많으며, 응답자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61.4%, 사별 21.0%, 미혼 14.5% 등이며 개인의 인생주기에 따라서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다.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27.9%, 중학교 9.8%, 고등학교 30.6%, 대학교 이상 31.7%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18.2%, 100~200만원 23.0%, 200~300만원 20.5%, 300~400만원 17.9%, 400만원 이상 20.5%이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 11.4%, 건강한 편이다 41.8%로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구성적 특성을 비교해 보면, 고령 세대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높고 농촌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학력, 건강, 가구소득이 낮다. 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남성비율이 높고 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아지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표 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세)

		식민지·전쟁 세대	복구·부흥기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	total
성 별	남 성	74(33.3)	126(46.3)	124(48.8)	129(51.2)	453(45.3)
	여 성	148(66.7)	146(53.7)	130(51.2)	123(48.8)	547(54.7)
연 령	평균(표준편차)	78.7(3.8)	66.0(4.4)	47.7(4.7)	29.7(5.5)	55.0(18.8)
거주지	대도시	86(38.7)	114(41.9)	121(47.6)	129(51.1)	450(45.0)
	중소도시	93(41.9)	109(40.1)	112(44.1)	108(42.9)	422(42.2)
	농 촌	43(19.4)	49(18.0)	21(8.3)	15(5.9)	128(12.8)
혼인 상태	유배우자	88(39.6)	196(72.1)	218(85.8)	112(44.4)	614(61.4)
	별거·이혼	4(1.8)	10(3.6)	12(4.7)	5(2.0)	31(3.1)
	사 별	130(58.6)	66(24.3)	14(5.5)	0(0.0)	210(21.0)
	미 혼	0(0.0)	0(0.0)	10(3.9)	135(53.6)	145(14.5)
학력 수준	무 학	67(30.2)	24(8.8)	2(0.8)	0(0.0)	93(9.3)
	초등학교	93(41.9)	85(31.3)	8(3.1)	0(0.0)	186(18.6)
	중학교	23(10.4)	48(17.6)	22(8.7)	5(2.0)	98(9.8)
	고등학교	28(12.6)	80(29.4)	130(51.2)	68(27.0)	306(30.6)
	대학교 이상	11(5.0)	35(12.9)	92(36.2)	179(71.0)	317(31.7)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8(45.8)	69(26.2)	9(3.6)	5(2.1)	171(18.2)
	100~200만원	44(22.9)	98(37.3)	29(11.5)	45(19.3)	216(23.0)
	200~300만원	19(9.9)	44(16.7)	79(31.2)	51(21.9)	193(20.5)
	300~400만원	15(7.8)	28(10.6)	67(26.5)	58(24.9)	168(17.9)
	400~500만원	10(5.2)	14(5.3)	36(14.2)	40(17.2)	100(10.6)
	500만원 이상	16(8.3)	10(3.8)	33(13.0)	34(14.6)	93(9.9)
주관적 건강	매우 건강함	8(3.6)	23(8.5)	33(13.0)	50(19.8)	114(11.4)
	건강함	62(27.9)	103(37.9)	126(49.6)	127(50.4)	418(41.8)
	보 통	67(30.2)	84(30.9)	75(29.5)	61(24.2)	287(28.7)
	건강하지 못함	73(32.9)	52(19.1)	17(6.7)	12(4.8)	154(15.4)
	매우 건강하지 못함	12(5.4)	10(3.7)	3(1.2)	2(0.8)	27(2.7)
		222(100.0)	272(100.0)	254(100.0)	252(100.0)	1000(100.0)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선행연구들은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어떤 의미로 인식되는가를 밝히기 위해 소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응답내용을 조직화하고 범주화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세대별로 다르게 인식되는지를 비교하므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찾지는 않는다. 대신 성공적 노화의 주관적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중요성이 확인된 내용과 항목을 중심으로 세대별 인식차이를 비교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김미혜 외 2004; 김미혜·신경림 2005; 손미숙 2004; 백은경 2006; 백지은 2006; 최인영 2007; Charbonneau-Lyons et al. 2002; Phelan et al. 2004)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의 목록을 취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항을 고르고 사회관계의 영역을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직계가족외 관계’로 구분하여 관련된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사회는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부모-자녀 관계와는 별개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김미혜 외 2004; 박경란·이영숙 2002; 성혜영·유정현

〈표 2〉 종속변수의 측정

종 류	노후를 잘 보내는 사람은해야 한다	신뢰도
부부관계	부부가 모두 건강하게 살아야 부부가 함께 오래 살아야 부부간에 금실이 좋아야 부부가 집안일을 함께 나눠 해야	.754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 또는 자손이 있어야 자녀들이 건강해야 사회적으로 출세해야 결혼해서 화목하게 살아야 경제적으로 걱정없이 살아야	.764
부모-자녀 관계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살아야 자녀와 자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어야 필요할 때 부모 자식 간에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어야 자식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아플 때는 자녀들이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필요할 때 자녀집안의 가사, 손·자녀 돌보기 등을 도와줄 수 있어야	.754
직계가족외 관계	형제자매, 친인척들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어야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 친인척이 있어야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어야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친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853

2002)를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문항을 확정했다.(〈표 2〉)

한편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가 생산성, 바쁨의 규범 등 특정 문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정경희 외 2006)과, 사전조사에서 여성 고령자들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해 보였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하여 ‘노후를 잘 보내는’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질문했다.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체크하였고, 사회관계의 영역별로 해당되는 문항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관계의 영역별로 Cronbach's α 는 모두 0.7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세대 외에도 분석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같다. 가족주의 성향은 가족주의, 가족이기주의, 의사가족주의 연구(박통희 2004)를 참조하여 6개 문항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체크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부양책임감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eelbach(1978)의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을 측정하여 5점 척도로 체크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2) 독립변수

〈표 3〉 독립변수의 측정

개인적 특성	성별(남성=1, 여성=0)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만들) 학력수준(학교교육을 받은 횟수) 취업여부(취업=1, 미취업=0) 건강평가(매우 건강하다 ~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5점 척도) 가구소득(5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상, 50만원 구간)
가족구조	혼인상태(유배우자=1, 무배우자=0) 부모동거여부(부모와 동거=1, 비동거=0) 자녀동거여부(자녀와 동거=1, 비동거=0)
가족주의	가족은 운명공동체이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을 생각하며 견뎌낸다 가족의 희로애락은 곧 나의 희로애락이다 힘들 때 혹은 기쁠 때 가족의 얼굴이 떠오른다 가족구성원들은 매사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부모, 형제자매, 자녀의 사회적 지위는 나에게 도움된다
부양책임감	결혼한 자녀는 부모 가까이 살아야 한다 부모가 건강하지 못할 때 자녀는 부모를 돌보아야만 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성장 후 부모 가까이 산다면 자녀는 일주일에 한번은 부모를 방문해야 한다 먼 곳에 사는 자녀는 일주일에 한번은 편지·전화를 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IV. 분석결과

1. 변수들의 기술분석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M=4.40$, $SD=.52$), 특히 자녀의 건강과 화목한 결혼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서 자녀에 대한 기대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에 못지않게 ‘부부관계’도 중요한데 ($M=4.32$, $SD=.56$), 장수하는 것보다 부부가 같이 건강하고 원만하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부모-자녀 관계’($M=3.85$, $SD=.59$)는 사회관계의 영역 중에서 평균값이 가장 낮는데, 이는 기혼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공감도가 다른 문항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M=2.95$, $SD=1.22$). 한편 한국은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적 삶의 조건이 짜여 있기 때문에 직계가족외 관계는 가족관계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를 위해 ‘직계가족외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M=3.96$, $SD=.61$)이 다른 관계보다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평균값이 4점에 근접해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한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분석은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관계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을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부록 참조).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기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관계 인식은 사회관계의 영역별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건강, 교육수준, 소득은 부부관계를 제외하고 사회관계의 중요성 인식과 (-)의 상관성을 보인다. 반면 가족주의와 부양책임감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은 일관되고 뚜렷하게 (+)의 상관성을 보인다.

2. 세대별 인식 비교

세대별 인식을 비교한 <표 4>를 보면, 부부관계와 직계가족외 관계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반면 자녀에 대한 기대와 부모-자녀 관계는 세대별로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이는데, 주로 식민지·전쟁 세대 및 복구·부흥기 세대 대 민주화 세대 및 정보화 세대 사이에서 발견된다. 반면 식민지·전쟁 세대와 복구·부흥기 세대 간의 차이, 그리고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 간의 차이는 간헐적이며 대부분 유의하지도 않다. 각 세대를 떼어놓고 보면 식민지·전쟁 세대와 복구·부흥기 세대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표 4〉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관계의 세대별 인식

단위: M(SD)

	식민지·전쟁 세대(a)	복구·부흥기 세대(b)	민주화 세대(c)	정보화 세대(d)	F	평균차 검증
부부관계	4.28(.60)	4.34(.55)	4.29(.58)	4.35(.51)	1.118	
자녀에 대한 기대	4.47(.52)	4.48(.48)	4.34(.57)	4.29(.48)	8.805***	ac, ad, bc, bd
부모-자녀 관계	3.96(.55)	3.95(.56)	3.75(.61)	3.67(.63)	1.345***	ac, ad, bc, bd
직계가족외 관계	3.95(.60)	3.96(.62)	3.96(.60)	3.97(.61)	0.074	

* p<.05, ** p<.01, *** p<.001

〈표 5〉 자녀에 대한 기대에 대한 세대별 인식

단위: M(SD)

	식민지·전쟁 세대(a)	복구·부흥기 세대(b)	민주화 세대(c)	정보화 세대(d)	F	평균차 검증
자녀 또는 자손이 있어야	4.39(.79)	4.42(.73)	4.18(.87)	4.11(.86)	8.839***	ac, ad, bc, bd
자녀가 사회적으로 출세해야	4.23(.72)	4.22(.75)	4.06(.83)	3.85(.90)	12.094***	ad, bd, cd
자녀가 건강해야	4.61(.60)	4.63(.64)	4.57(.67)	4.55(.61)	0.729	
자녀가 결혼해서 화목해야	4.63(.60)	4.61(.62)	4.50(.73)	4.53(.57)	2.090	
자녀가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어야	4.50(.74)	4.55(.64)	4.39(.76)	4.39(.67)	3.228*	bc

* p<.05, ** p<.01, *** p<.001

월등히 중요하고 부부관계가 두 번째로 중시되며, 부모-자녀 관계와 직계가족외 관계의 중요도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에서는 부부관계와 자녀에 대한 기대의 격차가 좁혀지며, 부모-자녀 관계보다 직계가족외 관계의 평균이 더 높았다.

세대별로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이는 〈표 5〉의 자녀에 대한 기대 및 〈표 6〉의 부모-자녀 관계의 세부분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식민지·전쟁 세대 및 복구·부흥기 세대와 민주화 세대 및 정보화 세대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다. 가장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자녀에 대한 지원제공과 자녀의 사회적 출세에 대한 것으로, 자녀 지원에 대해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는 식민지·전쟁 세대와 복구·부흥기 세대에 비해 중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 또한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보상받고 자신의 삶을 자녀들에게 투영하는 식민지·전쟁 세대와 복구·부흥기 세대와 달리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는 노년기 삶을 자녀의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낮다.

〈표 6〉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세대별 인식

단위: M(SD)

	식민지·전쟁 세대(a)	복구·부흥 기 세대(b)	민주화 세대(c)	정보화 세대(d)	F	평균차 검증
결혼한 자녀와 동거해야	3.20(1.14)	3.10(1.24)	2.72(1.21)	2.79(1.19)	9.270***	ac, ad, bc, bd
자녀들과 자주 접촉해야	4.10(.74)	4.15(.71)	4.00(.77)	3.92(.81)	4.454**	bd
필요할 때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아야	4.18(.71)	4.22(.71)	3.99(.77)	3.96(.86)	7.272***	ad, bc, bd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아야	4.23(.71)	4.22(.77)	4.19(.79)	4.23(.70)	0.185	
아플 때 자녀의 보살핌 받아야	4.12(.77)	4.08(.79)	3.97(.79)	3.95(.85)	2.702*	ad
자녀의 집안일, 손·자녀 양육 등을 지원해야	3.95(.80)	3.93(.80)	3.66(.95)	3.53(1.02)	13.315***	ac, ad, bc, bd

* p<.05, ** p<.01, *** p<.001

한편 정보화 세대의 특성이 보이는 문항은 자녀의 사회적 출세에 대한 기대와 자녀와의 빈번한 접촉, 그리고 노부모 부양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정보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인식의 궤도를 공유하면서 식민지·전쟁 세대와 복구·부흥기 세대와 구분되었던 것과 달리, 자녀의 사회적 출세에 대해서는 정보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간에도 인식의 경계선을 긋고 있다. 소위 '88만원 세대'를 포함하는 정보화세대는 사회적 출세와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이라는 집단보다 개인으로서 자신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화 세대는 정보화와 테크놀로지 발달의 일차적 수혜자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과 가상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은 반면 다른 세대에 비해 대면 접촉의 기회는 적은 편이다. 이런 연유로 인해 이들은 부모-자녀간의 빈번한 접촉이 노년기 삶과 성공적 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차이는 식민지·전쟁 세대와 정보화 세대 사이에서만 발견되는데, 부흥·복구기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부양의식이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세대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문항은 자녀의 건강과 화목한 결혼생활,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관한 것이다. 이들 문항은 다른 문항들과 비교해서 공감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대에 따라 인식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사회가 변하더라도 노년기 삶의 질과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3.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관계 인식의 결정요인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사회관계 인식에 세대요인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모델에는 세대 이외에 성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변수(교육연수, 가구소득, 취업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혼인상태, 부모·자녀와 동거여부), 가족주의 및 부양책임감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세대차이의 존재가 세대를 구성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세대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표 7〉 다중회귀분석결과(b, s.e.)

N=938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자녀 관계	직계가족외 관계
(상 수)	2.512(.168)***	2.501(.149)***	1.970(.170)***	2.638(.190)***
남성(여성=0)	-.032(.038)	.007(.034)	-.033(.038)	.009(.043)
식민지세대#	-.002(.074)	.082(.066)	.057(.075)	-.230(.084)**
부흥복구세대#	-.002(.060)	.127(.053)*	.143(.061)*	-.161(.068)*
민주화세대#	-.091(.053)	.019(.047)	.026(.054)	-.059(.060)
대도시##	.026(.055)	.040(.049)	-.034(.056)	.001(.062)
중소도시##	.122(.054)*	.102(.048)*	-.076(.055)	-.037(.061)
교육연수	.017(.005)***	.006(.005)	.004(.005)	-.001(.006)
건강상태	-.020(.019)	-.038(.017)*	-.028(.019)	-.027(.021)
취업(미취업=0)	.032(.040)	-.100(.035)**	-.027(.040)	-.088(.045)
가구소득	-.009(.011)	-.009(.010)	-.006(.011)	-.008(.012)
부모와 동거 (비동거=0)	-.032(.057)	.024(.051)	-.009(.058)	-.123(.065)
자녀와 동거 (비동거=0)	.021(.041)	.045(.036)	.012(.041)	-.038(.046)
유배우자 (무배우자=0)	.010(.041)	.016(.037)	-.086(.042)*	.028(.047)
가족주의	.360(.031)***	.397(.027)***	.190(.031)***	.242(.035)***
부양책임감	.056(.027)*	.069(.024)**	.355(.028)***	.186(.031)***
R ² (adj. R ²) F	.186(.173) 14.096***	.276(.264) 23.412***	.267(.255) 22.453***	.132(.118) 9.377***

* p<.05, ** p<.01, *** p<.001

준거집단 = 정보화세대

준거집단 = 농촌

〈표 7〉을 보면 부부관계를 제외하고 세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NOVA에서는 세대차이가 없었던 직계가족외 관계에서도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세대의 영향력은 사회관계의 종류에 따라 방향이 다르다. 정보화 세대에 비해 부흥·복구기 세대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부모-자녀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반면 정보화 세대는 식민지·전쟁 세대와 부흥·복구기 세대에 비해 직계가족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 노년기 삶에 있어서 자녀중심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혀 있는 현재의 노인층 세대에 비해 정보화 세대는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관계를 중시하므로 이들의 노년기에는 직계가족을 넘어서 친구, 이웃 등으로 사회관계가 확산될 것이다.

교육과 건강은 각각 부부관계와 자녀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와 부부관계의 관련성을 깊이 인식하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낮은 편이다. 또한 경제적 지표로서 가구소득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반면 취업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교육과 건강, 취업활동은 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노년기의 삶을 의존성 또는 독립성으로 기대하는지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관계의 객관적 측면으로서 유배우자는 무배우자에 비해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이 낮는데, 이것은 배우자와의 생활이 중시되고 자녀에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부모 또는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사회관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기혼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낮은 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과도 관련되어 있다. 가족구성원과의 동거 자체보다 실제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며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족주의 성향과 부양책임감이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가족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관되고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요인은 직계가족을 넘어서는 사회관계에 대해서도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을 인식하는 데서 세대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주요한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기대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별 인식차이가 있다. 주로 식민지·전쟁 세대, 복구·부흥기 세대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 사이에서 발견된다. 식민지·전쟁 세대와 부흥·복구기 세대는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고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생존과 자녀교육이 일차적인 해결과제로 주어졌다. 또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근대화를 위한 집단동원과 단결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목표를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한다. 이는 성공적 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집단주의 가치관을 보여주는데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중시하고 자녀를 위해 부모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모습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현시대의 노인층은 식민지·전쟁 세대와 복구·부흥기 세대로서,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상받는 등 자신의 삶을 자녀들에게 투영한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완수를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받아들인다. 반면 빈곤에서 탈피하고 물질적 풍요와 사회발전을 경험하기 시작한 민주화 세대부터는 전통적 가치를 거부하고 집단주의 규범보다 개인주의 규범이 중시되며 자유와 권리 등의 시민적 가치를 내세우고 요구하게 되었다. 나아가 정보화 세대는 다원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서 다양성과 개성의 표현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폭되었다. 즉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는 집단주의 가치관과 전통적 가족주의가 약화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투영하지 않고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년기를 성공적이라고 본다.

둘째로, 회귀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화 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로 복구·부흥기 세대인데, 주목할 것은 정보화 세대의 부모가 되는 연령층의 상당수가 바로 복구·부흥기 세대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고 게다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일상을 공유하는 가족생활이 '세대갈등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묘사하는 연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조성남·최유정 2002; 함인희 2000, 2002). 이는 거시적인 세대차이가 미시적인 부모-자녀의 세대차이로 전환 또는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세대간 상호관계가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원만한 세대관계 유지가 어려워져 갈등이 첨예화될 것인지에 대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로,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세대차이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단순히 부부의 장수보다 부부간 원활하고 화목한 결혼생활이 성공적 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개인의 역량을 나타내는 학력, 건

강, 취업은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녀에 대한 인식에는 (-)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독립성과 자급자족의 가능성이 많을수록 노년기에 부부관계가 중요해지고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삶에서 배우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강조되고, 가사분담과 의사소통 등 실제로 노후 생활에서 노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로,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 사이에는 뚜렷한 정치성향과 사회의식의 차이가 있다고 역설되어 왔다(박길성 2002; 송호근 2003; 홍덕률 2003). 나아가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간의 세대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보화 세대의 공격적 저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우석훈·박권일 2007). 그러나 성공적 노화와 사회관계에 관해서는 이들 사이에 뚜렷한 세대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정보화 세대는 탈정치적이며 문화와 소비의 주역으로서 ‘신세대’, ‘신인류’로 그려져 왔지만, 성공적 노화의 사회적 차원에서는 독자적인 세대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정치사건을 중심으로 세대간 정치적 지향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주력한 반면 다른 차원의 세대적 특성은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매우 다차원적인 사회변동을 겪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사회현상을 정확히 읽어 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세대연구는 보다 다양하고 일상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커다란 한계점은 세대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횡단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세대차이는 동년배 효과와 연령 효과가 동시에 개재되어 있다. 동년배 효과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남으로 인하여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으로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연령 효과는 특정한 시대 또는 역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로 인해 생겨난 변화를 말한다. 그런데 횡단자료에서는 동년배 효과와 연령 효과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령층을 포괄하는 횡단자료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 요구되지만, 개별 연구자들이 이러한 작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공적 노화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고 다차원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차원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사회관계에서 발견된 세대별 인식차이와는 다른 형태와 내용의 세대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세대적 특성과 세대차이를 명확하게 짚어냄으로써 한국사회의 급속한 사회변동을 설명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

는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강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2): 95-116.
- 김경연·정여진. 2006. “건강 및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의 요소 탐색.” 《노인복지연구》 34: 31-54.
- 김미혜·신경림. 2005. “성공적 노화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 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79-95.
- 김미혜·임연옥·권금주·김혜선. 2004. “성공적 노화를 위한 한국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기대.” 《한국가족복지학》 13: 43-74.
- 김혜영. 2005.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가족과 문화》 17(1): 115-146.
- 박경란·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길성. 2002. “왜 세대인가.” 《사상》 54(3): 8-37.
- 박재홍. 2005. 《한국의 세대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나남출판.
- 박재홍. 2008. “세대 계승과 사회문화적 변동.” 한국사회학회 건국 6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 논문집 79-98.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1): 10-34.
- 박통희. 2004. “가족주의 개념의 분화와 경험적 검토—가족주의, 가족이기주의, 의사가족주의.” 《가족과 문화》 16(2): 93-125.
- 백은경. 2006.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주관성 연구—Q방법론적 접근.”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지은. 2006.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비교문화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지은·최혜경. 2005.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6.
- 백지은·최혜경. 2007.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37-153.
- 성혜영·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Q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2(2): 75-93.
- 손미숙. 2004. “Q방법론을 이용한 중년기의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 삼성경제연구소.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 유희정. 2007. “농촌 사별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경험 연구.” 《한국노년학》 27(3): 617-634.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 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성공적 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순돌.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7(4): 829-846.
- 조성남. 1998. 《고령화사회와 중상층 노인의 사회활동》. 집문당.
- 조성남·최유정. 2002.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 가족내 세대문제와 통합.”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발표집 133-166.
- 최인영. 2007.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함인희. 2000.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공존을 향해.” 《사상》 44: 188-209.
- 함인희. 2002. “가족, 세대갈등의 역동적 무대.” 《사상》 54: 189-211.
- 홍덕률. 2003. “한국사회의 세대 연구.” 《역사비평》 64(3): 150-191.
- 홍현방. 2002.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22(3): 245-259.
- 황상민. 1999. “세대의 계열과 인생주기를 통한 미래사회 성격의 예측.” 《현상과 인식》 79(4): 100-118.
- 황상민·김도환. 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Baltes, P. B. and M. M. Baltes.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and M. M. Baltes(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ssuk, S. S., T. A. Glass, and L. F. Berkman. 1999. “Social Disengagement and Incident Cognitive Decline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Person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1(3): 165-173.
- Charbonneau-Lyons, D. L., P. M. Mosher-Ashley, and M. Standford-Pollock. 2002. “Opinion of College Students and Independent-living Adults Regarding Successful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8: 823-833.
- Chou, K. L. and I. Chi. 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1): 1-14.
- Crosnoe, R. and G. H. Elder. 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Fisher, B. J. and D. K. Specht. 1999. “Successful Aging and Creativity in Later Life.” *Journal of Aging Study* 13(4): 457-472.

- Ingersoll-Dayton, B., C. Saengtienchai, J. Kespichayawattana, and Y. Aungsuroch 2001. "Psychological Well-being Asian Style: the Perspective of Thai Elder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6: 283-302.
- Kertzer, I. D.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 Mannell, R. C. and S. Dupuis. 1996. "Life Satisfaction." In J. E. 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San Diego: Academic Press.
-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K. Mannheim(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itchell, B. A. 2002. "Successful Aging: Integrating Contemporary Ideas, Research Finding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amily Relations* 51(3): 283-290.
- Phelan, E. A., L. A. Anderson, A. Z. LaCroix, and E. B. Larson. 2004. "Older Adults' Views of 'Successful Aging': How Do They Compare with Researches' Definitions?"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2: 211-216.
- Riggs, A. 1997. "Men, Friends and Widowhood: Towards Successful Aging." *Australian Journal on Aging* 16(4): 182-185.
- Rowe, J. W. and R. L. Kahn. 1998. *Successful Aging*. NY: Dell.
- Seelbach, W. C. 1978. "Correlates of Aged Parents'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 and Realization." *The Family Coordinator* 27(4): 341-350.
- Strawbridge, W. S., M. L. Wallhagen, and R. D. Cohen. 2002. "Successful Aging and Well-being." *The Gerontologist* 42: 727-733.
- Torres, S. 2002. "Relational Values and Ideas Regarding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3): 417-432.
- Vaillant, G. E. 2003. *Aging Well: Surprising Guideposts to a Happier Life from the Landmark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Little Brown and Company(이덕남 역. 2010. <<행복의 조건: 하버드대학교·인간성장보고서>>프린티어)

[접수 2010/4/5, 1차수정 2010/5/27, 2차수정 2010/6/20, 게재확정 2010/6/24]

〈부록〉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부부 관계	자녀 기대	부모-자녀 관계	가족 외 관계	남성	대도시	중소 도시	교육
자녀기대	.548**							
부모-자녀	.390**	.500**						
가족 외 관계	.409**	.437**	.549**					
남 성	-.017	-.066*	-.068*	-.035				
대도시	-.005	-.014	.036	.046	.013			
중소도시	.074*	.072*	-.063*	-.032	.003	-.773**		
교육년수	.097**	-.069*	-.129**	-.001	.295**	.180**	-.019	
건 강	.004	-.116**	-.122**	-.032	.212**	.060	.005	.388**
가구소득	.017	-.058	-.091**	-.037	.105**	.125**	-.023	.433**
취 업	-.003	-.170**	-.132**	-.084**	.288**	-.036	-.005	.321**
유배우자	.024	.000	-.087**	-.003	.181**	-.014	.012	.217**
부모동거	.012	-.060	-.053	-.019	.149**	.078*	-.032	.315**
자녀동거	.028	.020	-.028	-.008	-.045	.078*	-.040	.153**
가족주의	.383**	.484**	.313**	.289**	-.075*	.048	.027	-.016
부양책임감	.161**	.256**	.476**	.269**	-.002	.013	-.043	-.137**

* p<.05, ** p<.01, *** p<.001

〈부록〉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계속)

	건 강	가구소득	취 업	유배우자	부모동거	자녀동거	가족주의
가구소득	.256**						
취 업	.219**	.217**					
유배우자	.089**	.112**	.232**				
부모와 동거	.183**	.233**	.058	-.313**			
자녀와 동거	.022	.332**	.158**	.342**	-.244**		
가족주의	-.009	.014	-.103**	-.007	-.018	.028	
부양책임감	-.082**	-.076*	-.150**	-.086**	-.023	-.033	.327**